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주는 작은 학교



김혜리 어린이병원학교 교장(가운데)과 병원학교 운영위원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꾸벅 허리를 숙이는 아이의 인사에 간호사들이 밝은 미소로 답한다. 어제 몸이 좋지 않았던 아이는 어른들의 걱정에도 수업을 듣겠다며 씩씩하게 병실을 나선다.

"입원 치료 중인 아이들이라 갑자기 몸이 안 좋거나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꼭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도 병원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행이라며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질 정도로 기뻐하시고요.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 되면 간호사실이 병동 입구에 있는데 꼭 들러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인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병원학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신우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호사는 "부모님과 병동 의료진, 학교 선생님과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환자가 아닌 학생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곳

2006년 8월 문을 연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20년 동안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1천여 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병원학교는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교과목은 물론 역사, 코딩, 보드게임,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다. 수업은 하루 6교시를 운영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1교시만 참여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아이의 치료 스케줄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가능한 한 학업 단절이나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업은 전 · 현직 교사와 특기적성 강사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환아의 건강 상태와 치료 일정을 감안해 환아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고, 감염 위험 등으로 교실 이동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병행한다.

온 병원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킨다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장예지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학교 운영에는 변수가 많다"고 말한다. "갑자기 검사나 치료 일정이 잡히기도 하고, 컨디션이 나빠져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 선생님들은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셔서 수업을 못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응원하며 돌아가세요. 이런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바로 병원학교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업도 중요하지만 치료로 지친 아이들에게 '기다려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다'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 병원학교의 역할이거든요."

또 병원학교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의료진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부서, 사회복지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진은 환아의 치료 일정과 컨디션을 세심하게 공유하고, 간호부와 어린이병원 운영지원Unit은 안전하고 유연한 교육 환경을 조율한다. 사회복지팀 역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원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박종란 사회복지팀 차장은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우듯 병원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한다. 서광석 운영지원Unit 차장도 "병원 내 다양한 유관 부서가 하나로 뜻을 모았기에 2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며 견고한 원내 팀워크를 높이 평가했다.

건강하게 학교 복귀까지 지원

병원학교의 지원은 퇴원 후에도 계속된다. 퇴원하는 아이에게는 축하 이벤트와 응원 선물을 주고, 아이가 복귀할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직접 소통해 아이의 학교 복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간식 꾸러미와 학용품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아이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 주변의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병원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완치 후 건강하게 학교와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완치를 넘어서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긴 여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병원학교 교장인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교수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



지난 8월 20일 서울아산병원 신관 로비에서 열린 어린이병원학교 개교 20주년 행사 현장.



오랜 기간 재능을 나눠온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패 전달식이 지난 8월 26일 어린이병원학교에서 열렸다.